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진로 교육의 시간.
진행에 강은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대성입니다.

강은하-선생님,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진로 교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체 뭘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대성-그릴 수 있죠.

강은하-네, 어떠셨어요?

이대성-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을 정말 이해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런 질문들 다, 근데

괜한 걱정이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거든요.

준비는 전혀 다른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강은하-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선행 학습도 필요 없다.

영어도 안 해도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대성-그렇죠,
정확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의 진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단계가 있어요.

이게 4단계인데요.

강은하-4단계요?

이대성-네. 1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정의 화목이죠.

그다음 2단계가
바른 인성 교육과 예절 교육이죠.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세 번째가 자녀는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를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가내의 소통 문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훈계를 하기 전에
애정 표현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훈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진로 교육 이전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로 교육 준비 단계가 아니라

그냥 좋은 부모 되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대성-맞아요.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이 가능하듯이

그 위에서 차곡차곡 내용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진로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에게서

처음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

이것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의
직업 선생님의 역할이

더욱더 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앞에서 일이라든지
직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을, 책임감을 갖고

예의 주시를 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말씀하신 화목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진로 교육의 본질적인

4단계 준비가 잘 마쳐졌다고 하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대성-이제는 진로의 로드맵을
한번 짜 봐야 되겠죠.

강은하-로드맵이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시기를

썩 펼쳐놓고
각 시기에 맞춰서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진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이 로드맵이죠.
그래서 이 로드맵을 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은하-네.

이대성-왼쪽 아래가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른쪽 위로 갈수록
고등학교 2학년까지

로드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장하는
9년의 세월 동안

적어도 5번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 진로 로드맵 범위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화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인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로와
직업을 접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즘 미디어 세대들이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생기게 되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자녀의 성격도 알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습시다마는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직업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강은하-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체험.

이대성-그렇습니다.
체험이 키워드겠죠.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에서부터

어떤 케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발명, 관찰,
철학과 같은 분야도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체험을 해 주면

자녀 입장에서 충분히 더욱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소질하고 적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항상 아이들을 풀어놓으시고

그런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의 역할이

로드맵에서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마쳐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진 않죠?

강은하-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과정이 잘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성-아,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입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대학 교육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학, 아무 데나 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강은하-네, 맞습니다.

이대성-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계획을 세우라고

가이드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진로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가이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부터는
2년 동안은 진로 결정에 맞춰서

자녀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고2 부모님들은 지금
눈이 많이 커지셨을 것 같아요.

이대성-그릴 것 같습니다.

진로의 구성요소를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4가지가 있어요.

강은하-기억합니다.
업종, 직업, 기업, 그리고 학업.

이대성-정답입니다.
이 4가지인데

4가지를 성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측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흥미를 나타내는 분야에
이 4가지를 늘 고려해서

관찰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요소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녀의 최종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진로에 맞춰서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경우에는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또 대학
입학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진로의 4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분야와 연관된
업종, 기업, 직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에 지금
나타나있는 이 표시대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이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길게 펼쳐 놓고

그것이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진로의 4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부모님께서
제공해 주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은하-제가 방금

고2 부모님들께서

눈이 커지셨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1 부모님이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하-고2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조바심 내지 않고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성-맞습니다.

강은하-로드맵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로드맵에 없는
초등학교 이전에는

그러면 로드맵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대성-역시 진행자다운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강은하-네, 예리했습니까?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뇌의 발달이 상당히,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이죠.

호기심과 창의성을 꾸준히
발달시키는 것이

진로 교육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안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야를 찾기 위해서
체험 교육을

제가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독서라든지 교재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오감 방문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하기 위함이라면

초등학교에서는 그 전 단계에서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오감을 다양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은하-그 오감을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지금도 요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 좀 발견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재미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하는 걸 발견을 했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하는 걸 오감을 통해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성-자료 한번 보실까요?

강은하-네.

이대성-보통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듣고, 보고

또 말하고 이런 신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걸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독서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운동하는 거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공연,

또는 체험, 수집 활동 그리고 음악

그리고 미술,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요리 이런 것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오감을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은하-오감에 자극을 주는 것이
두뇌 활동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진로를 잘 지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맞습니다. 진로 선진국들이
15세 전후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확정 짓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시기에 국·영·수에 집중하고

수능에 집중하고 선행 학습에
분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국내 교육 과정에
수능이라는 거대한 이 과정,

이 틀이 있기 때문에
기초 과목에 대한 완성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직업적인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 요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너 공부하세요."가 아니고
"엄마, 제가 왜 공부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동기 요인을
"네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 이전에 진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일과 스위스,
핀란드 진로 교육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복은 있지만
한 350개 정도의 다양한 직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 당국과
기업이 사전 협의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단초가 되어서

조금 더 원만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하-사실 이게 잘
진행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잘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죠.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도

진행 과정 속에서 단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장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이 서서히 녹아든다면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은하-학부모가 내 자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려면 같이 시간을 들이고

또 시간을 많이 못 내신다면 질적인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박물관을 가시고 미술관을 가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또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 주신다든지

그런 노력만으로도 좋은 체험 채널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 부모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답은 학부모뿐이라는 것이죠.

아이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행위, 의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다들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이대성 선생님의 열정적인 응원에 덧입어서

시청자분들인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그 열정이

눈에 보이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